허술한 비대면 대출시스템…개인정보 유출에 뻥 뚫렸다

휴대전화 개통→계좌 개설→공인인증서 발급→대출 사기까지 '일사천리'
광주경찰, 1억 불법대출 자금세탁 30대 검거…정보 유출 보험설계사도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불안하네요."

은행 이용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오픈뱅킹'이 금융사기 범죄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본인 확인없이 오픈뱅킹을 이용해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상에 올라온 보험계약서 등에서 빼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타인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 등)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SNS상에 개인정보를 임의로 올린 보험설계사 40대 B씨와 소속 보험회사도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우연히 B씨가 SNS상에 올린 보험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보험설계사 B씨는 자신에게 보험을 든 가입자들의 관리 편의를 위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SNS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올린 개인정보는 운전면허증 촬영본은 물론 신용카드 뒷면 CVC번호(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3~4자리 번호), 카드 유효기간, 보험계약서 등이다.

A씨는 이를 이용 피해자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유심(USIM)을 개통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오픈뱅킹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까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이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A씨는 범행 은닉을 위해 1억원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을 직접 실시해 본 결과 타인의 개인정보만으로도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모든 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출가능 여부 조회와 대출가능 금액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편의중심 핀테크(FinTech·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의 일종인 '오픈뱅킹'의 보안 취약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경찰은 보안 취약 사례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손해보험협회 등에도 보험업 종사자(보험설계사 포함)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주의와 교육 등 유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와 전자금융거래 편의성을 악용해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 관리 탓으로 돌리기만 하는 금융권과 금융권 범죄 관리 당국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기술 활용에 익숙한 세대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큰데도 금융권들이 제시하는 대책은 고객 스스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다. IT·금융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들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언제든지 이같은 비대면 대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비대면 대출사기 흐름도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오픈뱅킹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경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개인정보를 빼내갈 수 있는 방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금융권 스스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어린이들 '독도의 날' 퍼포먼스 어린이들이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의 날(25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건 인사이드

음주사고 내고 술 깰 때까지 숨어 있었다면?

"졸음운전 사고"라며 30시간 뒤 자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

음주 사고를 내더라도 술이 깰 때까지 숨어 있었다면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광주서부경찰은 인도로 돌진한 사고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30여시간 뒤 자수한 A(30대)씨에게 사고 차량 미조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아우디 차량으로 인도를 덮치는 사고를 냈다. 지구대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차를 버려두고 도망친 뒤였다.

A씨는 사고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채 PC방, 사우나, 병원 등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후 사고 34시간여가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께 경찰서를 찾아가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자수했다. 이 때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였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한 '기록'이 없으면 애초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CCTV, 카드 사용 기록, 블랙박스 등을 조회하면 음주 운전 정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정황만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심지어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백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기록이 없으면 해당 혐의로 입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보험 업계에서 활동한 점에서 법의 맹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현행법상 A씨의 음주 운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대출 심사 도와 주마"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급하게 대출을 구하는 이에게 대출 심사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출 업무 대행사를 자처하며 피해자 1명에게서 60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뜯어낸 A(20대)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에 거주 중이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신용불량자나 무직자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글을 올려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광주에 거주 중인 피해자 B(20대)씨는 지인 등에게서 빌린 5000여만원 빚이 있는데다 신용 등급이 낮아 제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던 차에 A씨가 올린 글을 보고 대출 업무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실제로는 대출 대행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3개월여 동안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다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전자발찌 차고 전 여친 감금·흉기 협박 40대 체포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24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감금한 A(40대)씨를 협박, 감금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성폭력을 저지른 전력으로 6년 동안 복역했으며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여·30대)씨를 자기 집에 4시간 동안 감금한 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가해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범행은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B씨가 인근 편의점에 뛰어들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B씨는 최근에 A씨와 헤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2일부터 B씨에게 "다른 남자랑 여행을 갔다는 게 사실이냐",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해 자신의 집에 찾아올 것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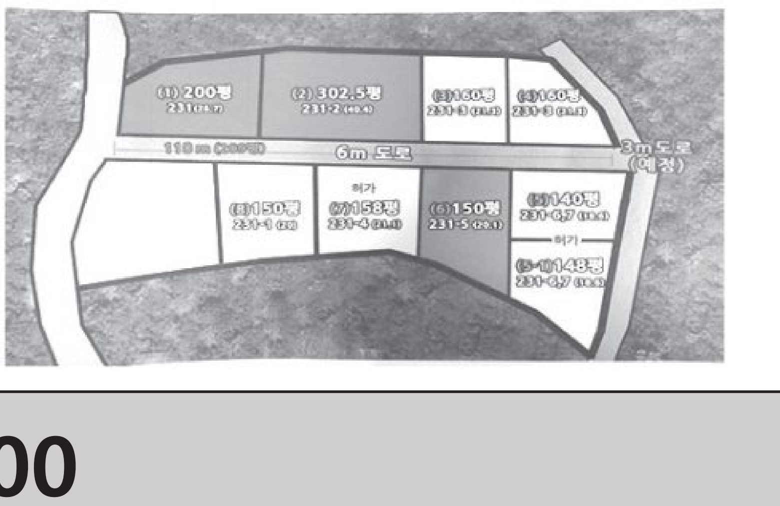
장성토지 매매 (분양)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공기최고(축사없음), 소나무 숲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



010-6670-9800

경매교육 [기초반]

*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6억1천 → 최저가 3억4천
	광산구 수완동 (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3억5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7백
	서구 매월동 (임야) ▶ 감정가 6억2,700 → 최저가2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2천
	서구 매월동 (빌라) ▶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남구 봉선동 (아파트23평) ▶ 감정가2억 → 최저가 1억4천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010-2614-9801